

伝道主日
説教

전도의 불을 붙여라

<사도행전 16:6~10>



구 자 우 목사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

오늘의 본문은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는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전략의 새로운 전환기(turning point)를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들고 어떤 계기로 유럽 지역에 처음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몇 년 동안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교회에서는 전도의 불이 꺼져간다고 안타까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도의 불을 다시 붙이도록 합시다.

1.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라 (6-8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6절).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시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힘차게 전파하며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계획이나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도의 길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패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더욱 잘 분별하고 효과적으로 전도하게 되는 기회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계획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더 깊이 귀 기울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역에서 직면하는 각종 어려움과 실패는 사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전도의 방향을 재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강력한 전도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2. 간절히 호소하는 영혼에게 마음을 기울이라 (9절)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마케도나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영혼들을 돌보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의 지시가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깊은 부르심이었습니.

마케도나의 사람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발전된 상태였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심각한 갈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 참된 만족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도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갈망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교회를 다니다가 떨어진 이들일 수도 있고,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듣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된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는 이러한 갈급한 영혼들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이러한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영적인 갈급함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전도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3. 갈급한 영혼에게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말라 (10절)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의 긴급성을 의미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저하지 않고 드로아로 향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명이었고, 그들은 지체없이 이에 응답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는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기회는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촉하심을 받았을 때, 세상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해변가 인명 구조원의 예처럼, 우리도 주변에서 영적으로 허우적대는 영혼들을 발견하면,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마케도나로 달려갔고, 그 결과 복음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는 눈을 크게 떠서 우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작은 헌신에서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간절히 호소하는 영혼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갈급한 영혼에게 즐겁게 달려가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서부지방회

제18회 신도 집회 개최 석상헌금은 서부청년회 활동에 드려

11월 26일(주)에 제18회 신도 모임이 서부지방회 신도부 주최로 고베교회당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3년 만에 열렸는데 7개 교회 80여명이 참석했다.

1부 예배에서는 신도부장 윤종현 목사(아카시 교회)의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 2: 10)라는 메시지가 있었다. 석상헌금은 서부지방회 청년회 활동을 위해 드려졌다.

2부에서는 간증의 시간을 가져 청년회 고유미집사(고베교회), 여성회 오야마게이코권사(가와니시교회), 장년회 임영재장로(무코가와 교회)로부터 각각 감명 깊은 간증을 들을 수 있었다.

이후 그룹으로 나뉘어 '지금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랜만에 지방회내 교우들과 만나 각자의 신앙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보고 : 최미혜자)



관서지방회

2024년 신년사경회 개최 총회장 양영우목사를 강사로 맞아

관서지방회 전도부 주최의 2024년 신년사경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1월 14일(주일)과 15일(월) 양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번에는 총회장 양영우목사(무코가와교회)를 강사로 초빙했다.

첫 번째 날은 오후 3시에 오사카 교회에서 개최되어(77명 참석), <하나님과 동행한 기도문>(삿6: 11~14)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둘째 날은 오후 7시부터 경도교회에서 개최되어(43명 참석),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가 있었다.

또한, 15일 오후 3시부터 경도교회에서 전도부장 조영철목사(오사카북부교회)를 강사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마16:23-24)라는 주제로 교역자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보고 : 전도부장 조영철목사)



서부지방회

한일교류 신도대회 개최 10개의 분단으로 나뉘어 여러 문제토의

1월 8일(성인의 날)에 재일대한기독교회 서부지방교회·일본기독교단 효고교구 공동개최에 의한 제38회 한일교류신도대회가 교단 甲東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1984년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기독교단 사이에 맺어진 선교협약을 근거로 서부지방회와 교단효고교구가 협약의 실천을 목표로 1985년 이후 매년 1월 성인의 날에 개최해 온 것이다.

당일 111명(서부지방회 29명, 효고교구 82명)이라는 많은 참가자를 얻었다. 개회 예배는 히사다 사토이치로(교단 甲東교회) 대회위원장의 사회에서 진행되어, '한 성령 안에서' (에베소2: 11-22)라는 제목의 新堀真之(니이호리 마사유키)목사(교단 甲東교회)의 설교가 있었다. 석상 헌금은 카요코기금(고야의 집)을 위해 드렸다. 10개의 분단으로 나뉘어 점심을 함께 하고, 서로의 교제와 신앙생활상의 여러 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했다. 이어 플루트 연주자로서 若松裕子(川西교회) 자매의 플루트 연주가 있었다.

또한 岩村義雄(이와무라 요시오) 목사 (고베 국제 그리스도 교회)의 '주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강연이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能登半島 지진 등 약자에 대한 가혹한 현실을 목사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한신 대지진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새해 1일 能登半島 지진이 절실하여 모두가 강사의 강연을 들었다.

(고베교회 김무박)



서부지방회

신년 사경회 및 도제직회 개최 박영철 목사(쓰시마 은혜 전도서) 강사로

1월 14일(주)후쿠오카 중앙교회(일부 온라인)에서 실시했다. 강사는 박영철목사(쓰시마 은혜). 40명 이상이 참석하여 복음의 지혜와 애찬 때를 나눴다. "각자의 서 있는 곳이 복음의 희망 안에 있으며, 각각의 삶에는 보물이 있다" 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중요한 시점은 우리 일상을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겠다는 변화를 가질 수 있을 가라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삶 있는 자에게 구원의 말씀을 준다. 자신의 힘에 초점을 맞추어 버리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언제나 하나님께 맡길 때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신되어 하나님과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한다.

그 성경의 말씀을 박영철 목사의 간증과 함께 들으면서 앞서 계시는 하나님의 깊을 느꼈다.

쓰시마 선교에 하나님의 계획이 넘치는 것처럼 서남지방회의 각 교회와 우리 삶도 하나님과의 접점을 기점으로 하여 복음의 희망 안에 있다고 격려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새 삶을 받겠다는 확신에 생명을 움직이면서 그 은혜를 간증하는 사역을 나누었다.



大阪 KCC

관장 이임 · 취임식 거행 새로 신용섭목사가 취임

지난 1월 21일, 오사카교회에서 재일한국기독교교회관 (KCC) 제 4대 관장 이근수목사 이임 및 제5대 관장 신용섭목사의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KCC서기이사 박성균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설교는 이사장 김중현 목사가 ‘작은 예수를 섬기는 교회’ 라는 제목으로 KCC의 선교적 사명에 관해서 뜨겁게 말씀을 전했다.

이임하는 이근수 목사에게는 총회장 양영우목사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취임하는 신용섭 목사에게는 제2대 관장이었던 이철일목사가 격려사를 하였다. 축사에는 関西기독교대표자회의 의장 磯崎久(이소 하루히사) 성공회 주교, 총간사 정수환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발음교회 전근영목사의 영상 메시지가 있었다. 이근수목사는 간절한 감사의 말을 전했고, 신용섭목사는 힘차게 앞으로의 결의를 다진 후에 전이사장 정연원목사의 축도로 폐회했다.

총회 사무국

총간사 이 · 취임식 거행 신총간사는 목회를 겸무하면서 업무

지난 2024년1월9일(화) 총회 사무국에서는 김병호 전 총간사의 이임 및 정수환 신총간사의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총회 서기 이명충목사의 사회, 부총회장 신대영장로의 기도, 부총회장 장경태목사의 설교 후, 업무 인수 인계와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총간사 김성제목사의 격려사로 진행되었다.

신 총간사 정수환목사는 사정에 의해 니이하마(新居浜)그레이크스 교회의 목회를 겸임하면서 총간사 업무를 맡게 되었으며, 매월 한 번 정도 상경하여, 또한 온라인으로 업무를 보게되며, 그 외의 업무는 간사로서의 역할을 전 총간사 김병호목사가 계속해서 업무에 임하게 되었다.



교토남부교회

조봉제 명예장로가 소천 교토남부교회 건축 위원장으로서 진력



교토남부교회 조봉제 명예장로가 2024년 1월 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토남부교회에서 아라이 유키 목사의 집례로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향년 87세.

고인은 1936년 일본에서 태어나 1980년 김덕화목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1993년 장로로 장립된 후 교토남부교회 건축 위원장으로서 진력하였다.

교토교회

김정환 은퇴장로가 소천 ‘불량장로’ 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봉사



2023년 12월 30일 새벽 2시 56분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했다. 향년 84세였다. 교토교회에서 임명기목사의 집례로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고 김정환 장로는 ‘불량장로’ 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였다.

책에 쓰여져 있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겨왔다.

《수첩의 정정과 추가》

하기와 같이 금년 수첩의 정정과 추가를 알려 드립니다.

- (1) 武庫川教会 長老 崔美恵子
〒538-0053 大阪市鶴見区鶴見3-13-53-1315 電話06-6913-6856
- (2) 李根秀牧師 関西 隠退牧師
〒557-0032 大阪市西成区旭3-3-10 電話090-7006-2337
- (3) 大阪教会 文哲順名誉長老住所
〒547-0041 大阪府大阪市平野区平野北1-10-5-503

은퇴목사 동정

오사카 니시나리교회 김원치 원로목사



김원치목사님은 올해 4월이면 만102세가 됩니다. 1992년에 은퇴하여 奈良市三碓의 개구리가 합창하는 눈에 둘러싸인 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월 한 번 설교하러 오셨습니다만, 90세 가까이 되면 1년에 2, 3번 정도가 되어, 90세를 넘어서고는, 그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사모님과 함께 京都의 ‘고향의 집(故郷の家)’에 입소하였습니다. 그곳에서의 주일의 예배에서 설교나 기도를 부탁받으면 잘 하였습니다. 김원치목사님은 현역 때부터 농담으로 사람을 웃기게 하거나 총회 등에서 큰 목소리로 꾸짖거나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말수가 적고 입이 무거운 분이셨습니다. 2020년 11월에 박귀수사모님의 소천후에는 과묵해졌습니다. 코로나 때에도 설날이나 생일에는 먼 곳에서도 자녀들과 손자들이 인사하러 모여, 그것이 어려울 때는, 영상 통화로 얼굴을 보여주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주일의 예배에는 계속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이전과 같은 봉사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휠체어의 일상 생활에서도 거의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고향의 집 직원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해방전(전쟁전) 이북에서 마즈야마의 고등학교로 유학시켜 준 부모님이 계셨던 고향을 그리워하고 계시는지,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韓日对照聖書販売

各ページの左に韓国語(改革改正訳)、右に日本語(新共同訳)が掲載されています。



- A5版変型・1760ページ、革製
- 価格:(2月29日まで)3,000円(消費税・送料込み)
- (3月1日以降は)4,0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總會事務所へ

2024년/제38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집회 선언

우리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외기협)는 2024년 1월 25일~26일에 제38회 전국협의회를 일본 침례교 히로시마기독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21세기 이민사회의 선교과제 - 제3기 외기협을 구상하다>라는 주제로 각 외기연 및 외기협 회원교단 및 단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 등 41명이 참가하여 <외국인주민기본법>, <인종차별철폐기본법2024>, <난민 보호법>의 실현을 위해 역사를 직시하고 일본에서 일하는 이주민, 난민, 재일코리안의 현황을 청취하고, 그 지원과 현 상황을 변혁하고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日/韓/在日教会, 시민사회 공동과제를 확인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는 <기능실습> 제도에서 <육성근로> 제도로의 전환이 불합리한 현실을 그대로 둔 채 검토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소셜 북카페 하치도리집>은 사회문제를 놓고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하는 장을 만들어왔습니다. 일반사단법인 <에에잔>은 격차와 분열이 확대되는 사회에서 히로시마현 내 다양한 입장의 외국인들과 만나 이웃으로서 상담, 학습/취업 지원 등을 해왔습니다. <아투투미안마>는 쿠데타에 대한 미안마인들의 저항운동에 대한 연대를 배우고 기도를 모으는 것을 중심으로 소규모 지원에 힘쓰면서 모금활동을 통한 본국 지원, 일본에서의 재류자격 취득 등의 활동을 해왔다. 또한 성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류민을 선택하셔서 환대와 우애를 불러일으키는<축복>을 사명으로 맡기셨고, 예수님 자신이 기류민으로서 거처가 없는 자들의 거처를 만들기 위해 사셨으며, 인간의 권위주의적 지배에 대항하여 환대와 우애의 장막을 함께 펼치는 교회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분쟁과 민중 탄압으로 인해 많은 난민과 피난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국제 인권기준에 반하여 난민신청 중이라도 강제송환을 가능하게 하는 입관난민법 개악(改悪)을 내어놓았습니다. 이에 외기협은 <입관난민법 개악에 항의하며 난민·이주민과 함께 사는 공동생명>을 발표하는 한편, <난민·이민 동료 생명 긴급기금>을 발족하여 난민·이주민을 둘러싼 열악한 현실에 당사자들과 함께 맞서 '당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소수자에게 고난을 강요하는 다수자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재일코리언을 비롯한 다른 외국인 주민의 지문날인 거부 투쟁에 대한 연대 속에서 이미 각각의 <풀뿌리>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각지역 <외기연>이 결집하여 1987년에 외기협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결성되었습니다. 日/韓/在日教会의 공동과제로 외등법(外登法)문제를 다루며 지문날인 거부자 체포, 재입국 불허, 재류갱신 불허 등의 탄압에 맞서 지문제도의 전면 폐지를 쟁취하였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외기협은 <외국인주민기본법(안)>을 만들어 일본이 국제 인권규범에 따라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다민족-다문화 공생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2단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테러대책>을 핑계로 한 소수자에 대한 적대감과 배척, 그리고 혐오 언동(Hate Speech)/혐오 범죄(Hate Crime)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기협은 전후 보상 문제를 비롯해 한일 시민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공유하며 일본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박탈당한 외국인 주민의 인권 쟁취 투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도달점을 확인한 외기협은 온라인을 포함한 정보 발신과 교류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지역/세대/국적을 초월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제3기의 새로운 전개를 구상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일본 침례교 히로시마 그리스도교회를 장소로 제38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그리스도인 집회'를 개최하여 현재의 과제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류자가 되어 주시는 축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해방의 네트워크를 넓히며 새로운 복음선교의 발걸음을 내딛을 것을 결의합니다.

2024년1월26일

제38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집회 참가자 일동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연락 협의회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 B6版変型・1483ページ
- 価格：2,500円 (消費税・送料込み)
-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讃頌歌委員会より「子どもさんびか」が発行されています。

主の祈り・使徒信条・交読文・十戒集録 (いずれも韓国語・日本語)
一冊1,000円
お問い合わせは総会事務局へ
電話 03-3202-5398

